

副詞語 範疇의 體系化를 위하여¹⁾

安 明 哲

(仁荷大 教授)

要約 및 抄錄

本稿는 國語의 副詞語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體系化를 시도하였다.
국어의 부사어는 형태상으로 語彙 副詞, 副詞格 助詞句, 副詞形 語末語尾를 가진 節로 이루어진다. 이 부사어를 문장의 위치에 따라 각각 補語 副詞語, 附加的 副詞語, 文章 副詞語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중 보어 부사어는 通常 보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어 부사어를 부가적 부사어와 함께 부사어 범주의 하위적 요소로 처리한 것은 이 양자가 동사구에서의 통사적 위치만 달리할 뿐 그 형태적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副詞形 語末語尾로 이끌리는 절을 부사어의 하나인 副詞節로 처리하였다. 부사절도 통사적 위치에 따라 보어 부사절, 부가적 부사절, 문장 부사절로 나뉜다. 문장 부사절은 通常 종속접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세 유형의 절을 모두 부사절로 보는 이유는 이들의 形態・統籌的 性格에 어휘적 부사어와 공통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I. 問題 提起

국어의 副詞語는 主語나 敘述語와 같은 다른 文法 範疇에 비해 통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덜 되어 왔던 範疇이다. 이는 부사어가 隨意的이며 이에 속하는 것들이 일반 副詞, 文章副詞, 接續副詞에서 副詞格 助詞句, 副詞節에

1) 이 글은 2001년 5월 26일 仁荷大學校에서 열린 제 139회 韓國語文敎育硏究會 全國大會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掲載한 것임.

이르기까지 다른 문법 범주에 비해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의미 또한 複雜多岐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副詞節과 從屬接續節의 관계는 더욱 모호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드러나 있는 複雜性, 模糊性에도 불구하고 각 유형의 부사어는 그 形態·統辭的인 공통적 특성이 있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副詞, 副詞格 助詞句, 副詞節의 形態·統辭的인 공통성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부사어 전반에 대한 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動詞句 및 文章 副詞와 副詞格 助詞句의 形態·統辭的인 공통적 특성을 살피고 계속하여 부사절 및 종속접속절이 어떻게 語彙的 副詞語와 구조적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게 될 것이다.

疏略한 글이지만 이 글로써 부사어 범주가 통사적으로 체계화되고 나아가 국어의 통사구조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II. 語彙 副詞와 副詞格 助詞句

국어의 부사어는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²⁾

1. 語彙 副詞 : 빨리, 아직, 일찍, 어른어른, 이리, 분명히, 다행히, 그러면
2. 副詞格 助詞句 : 아침에, 연필로, 동생보다, 사람처럼³⁾
3. 用言의 副詞語 活用形 : 기쁘게, 죽도록

2) 이외에도 '입은 채'와 같이 의존명사구가 부사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입은 채'는 '입은 채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이들도 부사격 조사구로 분류하여 둔다. 한편 부사는 '더 빨리'와 같이 다른 부사나 '아주 富者'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사의 주변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3) 副詞格 名詞句 대신 副詞格 助詞句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들 구성이 '에, 로, 처럼, 와' 등의 조사로써 최종적으로 副詞語의 기능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국어의 격조사구에 대한 논의는 임동훈(1991), 任洪彬·張素媛(1995) 등 참고.

이 가운데 용언의 부사어 활용형은 주로 종속접속 체제에서 다루어지며 부사어의 유형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등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서는 3, 4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먼저 어휘 부사와 부사격 조사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어휘 부사와 부사격 조사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다.

첫째, 副詞語는 과연 隨意的인 成分뿐인가?

둘째, 각각의 다른 통사적 위치에 나타나는 부사어, 예를 들어 文章 副詞語와 動詞句 副詞語는 서로 다른 부사어인가?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ㄱ. 그가 일없이 논다.
 ㄴ. 그가 바보처럼 글을 쓴다.
(1') ㄱ. 그가 논다
 ㄴ. 그가 글을 쓴다.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1')와 같이 생략이 가능한 附加語로 기능한다.

그러나 다음 문장의 경우는 부사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못한다. 이것은 부사어도 동사에 따라서 必須成分이 됨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附加語가 아닌 補語가 된다.⁴⁾

- (2) ㄱ. 그가 일없이 지낸다.
 ㄴ. 그가 바보처럼 군다.
(2') ㄱ. *그가 지낸다.
 ㄴ. *그가 군다.

(3)도 부사어가 보어로 쓰인 것을 보이는 예이다.

4) 국어의 보어에 대한 연구로는 이홍식(1998) 참고.

- (3) ㄱ.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향했다.
 ㄴ. 나는 그 책을 책상 위에 두었다.
 ㄷ. 얼음이 물로 되었다.
- (3') ㄱ. *한국은 삼면이 향했다.
 ㄴ. *나는 그 책을 두었다.
 ㄷ. *얼음이 되었다.

(3)의 敘述語 '지내다, 굴다, 향하다, 두다, 되다' 등은 동사의 성격상 부사어를 意味論的으로 반드시 요구한다.⁵⁾

한편 '안'이나 '못', '잘'과 같은 부사는 동사가 의미론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이들 부사는 언제나 서술어 바로 앞 자리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⁶⁾

- (4) ㄱ. 그는 학교에 안/못/잘 다닌다.
 ㄴ. *그는 안/못/잘 학교에 다닌다.
 ㄷ. 그는 학교에 다닌다.

(4)의 '안', '못', '잘'은 언제나 動詞 앞에만 올 수 있음을 보인다. 이 부사들은 (4ㄷ)과 같이 반드시 문장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사의 의미론적 조건에 따라 必須的으로 나타나야 하는 일반 부사어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미상으로는 隨意的이지만 어휘 자체에 內在된 통사적 특성으로 동사와 바로 인접된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부사인 것이다. 이 두 유형의 부사어의 체계상 관계에 대해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일단 이 글에서는 동사에 대한 문법적, 의미론적 밀접성이 있는 부사어들을 모두 補語 副詞語로 보기로 한다.⁷⁾

5) 여기서의 '반드시'는 정도성의 문제가 따른다. 가령 '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학교에'는 의미상 필요하지만 안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6) 이들 부사들이 언제나 용언의 바로 앞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점에 근거하여 任洪彬·張素媛(1995)에서는 '보어 부사'로 부르고 있다.

7) '補語 副詞語'는 통상 '補語'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기능을 가진다고 해서 그 기본적 기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부사어는 동사와의 통사·의미론적 밀접성에 따라 수의적인 부사어를 附加的 副詞語로, 필수적인 補語 副詞語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와 같은 문장 부사어도 隨意的이다. 이들 부사어는 동사구의 核(head)인 動詞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語彙核(lexical head)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내 생각에(는) 그 사람 잘못이 크다.

文章 副詞語와 구별하기 위해 동사구 내의 부사어를 動詞句 副詞語로 부르고 한다. 동사구 부사어에는 附加的 副詞語와 補語 副詞語가 포함된다. 문장 부사어도 일종의 부가적 부사어이나 본고에서의 부가적 부사어는 동사구 부사어에 국한되는 것으로 한다. 동사구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6) ㄱ. vp [AdvP V]
- ㄴ. vp [AdvP VP]
- ㄷ. cp [AdvP IP]

(6ㄱ)과 (6ㄴ)은 동사구 부사어로 (6ㄱ)은 보어 부사어, (6ㄴ)은 부가적 부사어가 된다. (6ㄷ)은 문장 부사어이다.

문장 부사어는 (6ㄷ)과 같이 그 구조상 屈折句(IP)를 직접 수식하는 성분이 된다.⁸⁾ 따라서 문장(S' = CP)의 直接構成成分이 되어 補文素(COMP)

목적어나 학교 문법의 보어(‘되-, 아니-’ 구문의)를 제외한 동사구 내에 있는 기타 성분을 부사어로 보고 필수 여부에 따라 다시 이를 하위 분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국어의 보어와 부가어에 대해서는 안명철(1999) 참고.

8) 부사어가 (6)에서와 같이 V, VP, IP를 공통적으로 수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V)와 屈折素(I)(=INFL)가 범주적으로 공통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영어의 本動詞와 助動詞는 매우 유사한 범주적 특성을 보인다. 국어의 경우 I 범주는 선어말어미가 되어 동사어간과 범주적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기원상 ‘-시-’, ‘-았-’, ‘-겠-’ 등의 선어말어미에 ‘(이)시-’, ‘있-’과 같은 동사 범주가 담겨있음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영어의 V와 I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

인 語末語尾와는 共起制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6ㄷ') [cp [AdvP IP] C(=COMP)]

(7) ㄱ. ? 아마도/ 틀림없이/ 내 생각으로는 너는 간다.

ㄴ. * 아마도/ *틀림없이 / * 내 생각으로는 너는 가라.

(7)에서 '아마도', '틀림없이', '내 생각으로는' 따위의 부사들은 명제에 대한 서법적 태도를 보이는 문장부사들인데 이들은 (7ㄴ)과 같이 명령문에서는 쓰일 수 없다. 그러나 동사구 부사어는 限界範圍인 IP 내에 있어 어말어미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둘째 문제인 부사어의 문장에서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자.

(8) ㄱ. 그는 일을 분명히(/확실히 ...) 한다.

ㄴ. 분명히(/확실히 ...) 그는 일을 한다.

(8ㄱ, ㄴ)의 부사어는 어휘적으로 모두 같다. 그러나 (ㄱ)에서는 부가적 부사어이나 (ㄴ)에서는 文章 副詞語로써 기능하고 있다.⁹⁾ 이는 부사어의 의미 해석에는 자체의 의미와 구조상의 위치가 동시에 작용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매우 다양한 의미역을 보이는 부사격 조사 '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9) ㄱ.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ㄴ. 그는 이번 회의에 의장으로/버스로/열성으로/분노로 참석한다.

ㄷ. 내 생각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다.

(9)에서의 조사 '로'는 變成(ㄱ), 資格, 方法, 原因(ㄴ), 敘法的 態度(ㄷ) 등의 기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9ㄱ)은 補語, (9ㄴ)은 附加語, (9ㄷ)은 文

는 Radford (1990) 등 참고.

9) 이 경우에도 강조나 휴지가 개입되게 되면 이들 부사어의 해석이 달라진다. (6ㄱ)에서 '분명히'나 '확실히'에 힘을 주어 말하게 되면 문장 부사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중립적이라면 (6ㄱ)의 부사어는 부가적 부사어가, (6ㄴ)은 문장 부사어가 될 것이다.

章 副詞語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로'의 다양한 의미는 실제로는 先行 名詞나 그리고 문장의 용언을 비롯한 기타 성분과의 統辭・意味論的 關係, 나아가서는 話用論的 조건에 따라 해석된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로₁', '로₂', '로₃'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로'가 국어의 조사 목록에 있어 이 각각이 자신의 고유 의 위치에서 실현된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아래의 구조는 동사와 '로' 격조사구의 선행 명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0) X로 V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구체적으로 V에 대한 'X로'의 문법적 기능이 어떠한 지, 또 'X로'가 나타내는 의미는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 다만 막연히 부사어 정도일 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다음과 같이 자체의 격기능이 명백한 주격, 대격의 '이', '를'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11) X가 Y를 V

따라서 조사 '로'는 그 위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로' 격 조사구의 의미의 다양성은 '로'의 고유 의미와 선행 명사, 용언 및 기타 의미론적 맥락이 통합되어 해석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¹¹⁾

부사격조사 '에'의 다양한 쓰임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 (12) ㄱ. 내 미래는 [내 생각에/ * ∅] 달렸다.
 ㄴ. 그는 [내 생각에] 무척 놀랐다.
 ㄷ. [내 생각에] 잘못은 철수에게 있다.

10) 최현배(1980=1937)에서는 조사 '로'를 각각 (1)연장자리(道具格)와 (2)감목 자리(資格格)의 토로 목록을 분리하여 부사격조사 체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도 일반문법이나 학교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11) 따라서 조사 '로'의 본질적 기능은 이러한 '로'의 관계적 기능이 걸려진 다음에야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에'와 '로'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는 남기심(1993), 김지은(1998) 참조할 것.

(12)의 []의 부사어는 모두 그 형태가 같은 '내 생각에'이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의미는 모두 달라서 (12ㄱ)은 方法, (12ㄴ)은 原因, (12ㄷ)은 敍法的 態度가 된다. 이와 같은 의미 차이는 '로' 격조사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의 위치((12ㄱ)은 보어 부사어, (12ㄴ)은 부가적 부사어, (12ㄷ)은 문장 부사어)와 동사의 의미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동일한 형태의 부사 또는 'NP-로'나 'NP-에' 같은 부사격 격조사구가 투사될 수 있는 문장의 위치는 (12)의 * 자리와 같이 최대 세 군데가 될 것이다.

(12) cp [* ip [… vp [* v̄ [* V]]]]

여기서 (12)는 한 부사어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최대 세 군데라는 뜻이지 어떤 부사어도 언제나 이 세 군데 자리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는 동사나 부사어 자체와 기타 문맥적 조건에 의하여 부사어는 (12)의 일부 자리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2)에서 각 위치의 부사어의 의미 해석은 자체의 고유 의미와 동사나 문맥적 조건 그리고 통사적 위치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사어의 의미의 복잡성은 이러한 데에 따른 결과이며 각 위치에 나타나는 부사어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이다.

Ⅲ. 副詞語와 副詞節

제3형의 부사어는 動詞의 副詞 活用形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한다.

(13) ㄱ.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ㄴ. 영호는 죽도록 고생을 했다.

이와 같은 부사어는 사실상 아래와 같은 節의 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³⁾

13) 여기서 '-도록' 등이 절을 이끌고 있는 보문소가 아닌 단순한 부사형어미로서의

- (13') ㄱ. 그가 [e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ㄴ. 영호는 [e 죽도록] 고생을 했다.

제3형의 부사어가 본질적으로 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副詞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名詞節이나 冠形節과 같은 범주와는 달리 부사절은 轉成節 체계에 쉽게 수용되지는 못해왔다.

부사형어미 또는 부사절과 관련한 이른 시기의 견해로는 최현배(1980=1937)의 어찌꼴어미(副詞形語尾)에 대한 언급을 들 수 있다. 최현배(1980)의 어찌꼴 어미는 감동법(資格法; 轉成語尾)의 하나인데, 들어 보인 네 부사형어미 '-아', '-게', '-지', '-고'는 모두 보조동사구의 내포문을 이끄는 어미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어적 부사어와는 다르다. 그리고 終決法(마침법)과 資格法語尾를 제외한 나머지 어미는 모두 接續語尾(이음법)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최현배(1980)의 제3장 '월갈'(文章論)의 부사어 부분에서는 부사

기능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아래의 (i)에서 경어법이 실현되지 않음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

i) 아버님은 행복하게(/??행복하시게) 돌아가셨다.

즉, i)에서 경어법이 실현되지 않음은 '죽도록'이나 '행복하게'가 기저에서 주어를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i)에서 경어법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양태적 부사절과 주절의 서술어에 경어법을 중복하여 실현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보조동사구문에서도 본동사와 보조동사 각각에 반복하여 '-시-'를 실현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ii) ?? 어머니가 선생님을 만나서 보셨다.

경어법 문제를 제외하면 '-도록' 구문에서는 (iii)과 같이 논항 실현에 문제가 없어 이들이 온전한 절의 구조를 가졌음을 말해준다.

iii) ㄱ. 아버지는 손발이 다 땀도록 고생을 하셨다.

다만 被使動 構文의 내포문을 제외한 '-게' 구문은 표면상 명확한 논항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서술성의 상실로 보아 이를 단순 부사형어미-부사어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점은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룰 점으로 판단되어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語末語尾와 敘述性의 관계에 대해서는 柳穆根(1985) 참고.

절이 전혀 언급되지 않게 된다. 이후 많은 논의에서 부사형어미는 보조동사의 내포문 어미로서 다루어지며 내포절 체계에서 부사절은 좀처럼 설정되지 않고 있다.¹⁴⁾

한편 최현배(1980) 체계에서의 부사형어미는 일반 부사어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또 그 형태적 특성으로 볼 때 국어의 접속어미와 동일한 꼴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근래의 학교 문법교과서인 「문법」(1985, 1990)에서는 이들을 접속어미 체계에 수용하여 ‘連結語尾’(=접속어미)를 ‘對等的 連結語尾, 從屬的 連結語尾, 補助的 連結語尾’로 下位 分類하고 있다.¹⁵⁾

이 점을 제외하면 학교문법의 체계는 최현배(1980)과 유사하게 되어 「문법」(1985, 1996)의 부사어 항목에서 어휘 부사와 부사격 조사구는 들어있지만 용언의 부사형 활용의 예는 제외되어 있으며 또한 轉成語尾로서의 부사형 어미도 설정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문법」(1985, 1996)은 어말어미 ‘-이’로 이끌리는 內包文을 副詞節로 서술하고 있는 체계상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

(14) ㄱ.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ㄴ.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 한다.¹⁶⁾

또 부사절을 체계에 수용하는 경우라도 金敏洙(1971), 任洪彬(외)(1995) 등과 같이 성분절로서 副詞節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¹⁷⁾ 대개는 從屬接續 체계에서 부사절이 언급된다.¹⁸⁾ 이와 같은 종속접속

14) 최근의 김지홍(1992)에서의 ‘부사형어미’도 최현배(1980)의 부사형어미의 틀을 따르고 있다.

15) 학교 문법(1996)에서의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등접속어미이고 종속적 연결어미는 ‘-는데’와 같은 종속접속어미이며 보조적 연결어미는 ‘-고’와 같은 보조동사 내포문을 이끄는 어미를 말한다.

16) 예는 학교문법(1996 : 77)에서 인용한 것임.

17) 金敏洙(1971)의 ‘副用句節’은 本稿의 附加的 副詞節에, ‘補語句節’은 補語 副詞節에 각각 해당한다.

18) 李翊燮·任洪彬(1983)은 종속접속 체계에서 부사절을 언급하며 종속접속과 동사구 내포문이 본질적으로 같은 부사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기심(1985)은 종속접속이 부사절이며 종속접속어미는 資格法의 부사형어미

의 측면에서 접근되는 부사절 체계는 이 성분이 결국 어떤 구성 단위의 일부가 아니라 구성의 연속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는 측면이 매우 강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논의 과정에서 부사형어미는 接續 또는 連結 차원에서 접근된다.¹⁹⁾

이러한 그간의 논의의 양상은 국어문법 체계에서 부사절의 위치가 얼마나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副詞語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사절이 의미가 複雜하고, 절 형식의 형태·통사적 양상이 曖昧하기 때문일 것이다.²⁰⁾ 특히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의 차이는 더욱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어의 부사어 체계에는 부사절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사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5) ㄱ. 동생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ㄴ. 동생은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했다.

국어의 부사어에 부사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통사·의미론적 근거에서이다. (15)의 內包節은 (15')과 같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의미의 부사어로 바뀔 수 있다.

- (15') ㄱ. 동생은 [버스로] 학교에 갔다.
 ㄴ. 동생은 [열심히] 일을 했다.

(15')와 같이 문장의 格支配主인 서술어가 같고 논항을 비롯한 나머지 성분이 동일한 상태에서 한 성분이 의미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역이 유사한 성분으로 대치되는 경우라면 구조상 이 두 항의 통사적 위

로 보고 있다. 남기심(1985)에서는 보조동사 내포문은 이 범주에서 제외되며 본고에서 언급할 부가적 부사절과 문장부사절의 구별은 하고 있지 않다.

19) 柳穆相(1985)에서는 接續語尾가 文의 敘述과 連結이라는 양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連結敘述語尾'로 부르고 있다.

20) 최현배(1937)의 어찌꼴과 이음법에 대한 서술을 참고할 것.

치가 동일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15)의 內包節은 부사절이 될 수 밖에 없다.

다음의 引用節도 代形式이 부사어로 된다. 구조상 이 대형식(pro-form)이 원래의 성분과 동일한 통사 자질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용절도 통사적으로 부사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16) ㄱ. 뉴스에서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ㄴ. 뉴스에서 [그렇게] 예보했다.

(15, 16)의 내포절이 부사절이면 체계상 이 부사절도 일반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동사와의 통사,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補語 副詞節과 附加的 副詞節 그리고 文章 副詞節로 나뉠 수 있다.

補語 副詞節은 동사에 대해 통사·의미론적으로 필수적이며 附加的 副詞節은 主節 동사에 대해 樣態的 修飾을 하게 된다. 보어 부사절의 유형은 (17)과 같다.²¹⁾

(17) ㄱ. 나는 [집에 가고] 싶다.

ㄴ. 그 친구는 [나를 못 살게] 군다.

ㄷ. 뉴스에서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17ㄱ)은 보조동사 내포문이며 (17ㄴ)은 필수 보어를 취하는 동사의 내포문이고 (17ㄷ)은 인용동사의 인용문이다. 이들은 모두 보어 부사절로 이들 내포문이 없으면 (17')와 같이 문장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17') ㄱ. * 나는 싶다.

ㄴ. * 그 친구는 군다.

ㄷ. * 뉴스에서 예보했다.²²⁾

21) 보어 부사절은 동사구 보문으로도 불린다. 이에 대해서는 安明哲(1999) 참조.

22) 일상 대화에서 “뉴스에서 예보했다”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대화 상황이나 문맥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적 부사절은 동사에 대한 부가적 수식을 하는 절로 (15ㄱ)과 같이 方法이나 (15ㄴ)과 같이 行爲 樣態 따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은 부가적이므로 문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文章 副詞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IV. 文章 副詞節과 從屬接續節

앞 장에서 우리는 국어의 부사어 및 절 체계에 부사절을 설정하는 타당성을 말하였다. 부사절이 부사어라면 부사어 체계 상 동사구 부사절뿐 아니라 문장부사절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장부사절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구조상으로 보아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의 차이는 명확하다. 부가적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하는 문장이고 종속접속절은 후행문장 전체에 대한 선행문이 된다. (18ㄱ)은 부가적 부사절이 동사구에 내포된 모습을, (18ㄴ)은 두 문장이 서로 접속된 경우를 그림으로 보인 것이다.

- (18) ㄱ. [... S ... V] vp
 ㄴ. [S₁] - [S₂]

그런데 국어에서 실제로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을 구별하기에는 구조적 측면이나 형태적 측면에서 쉽지 않다.

- (19) ㄱ. [비가 오면] 나무가 잘 자란다.
 ㄴ. [비가 올수록] 나무가 잘 자란다.
 ㄷ. 복동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땀다.

(19)의 (ㄱ, ㄴ)의 ‘-면’과 ‘-도록’으로 이끌리는 절은 종속접속절로, (ㄷ)의 ‘-도록’으로 이끌리는 절은 부가적 부사절으로 보인다.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아서 (ㄱ, ㄴ)의 [] 부분은 문장의 앞에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ㄷ)의 경우

면 이 문장은 내용없는 문장이 되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는 동사 앞에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종속접속절이나 부가적 부사절 모두 그 어순이 특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래와 같이 [] 부분의 위치를 바꾸어도 바른 문장이 된다.

- (19') ㄱ. 나무가 [비가 오면] 잘 자란다.
 ㄴ. 나무가 [비가 올수록] 잘 자란다.
 ㄷ. [밭에 땀이 나도록] 복동이가 땀을 흘린다.

아래의 (20ㄱ-ㄷ)은 모두 그 활용형 어미로 '-아'를, (21ㄱ-ㄷ)은 '-고'를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 21ㄱ)은 보어 부사절인 보조동사 내포문이고 (20, 21ㄴ)은 각각 方法의 부가적 부사절로 판단되며 (20, 21ㄷ)은 각각 原因과 繼起의 종속접속절로 보인다. 이 가운데 (20ㄱ, 21ㄱ)의 보어 부사절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것과 쉽게 구별이 되나 부가적부사절과 종속접속은 형태적 측면이나 통사적 측면에서 구별이 쉽지 않다.²³⁾ 이 점은 위 (19ㄴ, ㄷ)의 '-도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0) ㄱ. 나는 [땅을 팔-아] 보았다.
 ㄴ. 그는 [땅을 팔-아] 주식을 샀다.
 ㄷ. [영식이가 땅을 팔-아] 가족들이 모두 놀랐다.
 (21) ㄱ. 명호는 [e 차를 타-고] 있다.
 ㄴ. 명호는 [e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갔다.

23) 活用語尾 '-아'는 반말체의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請誘文에 두루 쓰인다(筆者는 拙稿(1992)에서 각 文型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 '-아'와 '-지'를 不定的 終結語尾로 부른 바 있다.) 그러나 종결의 '-아'는 논의되고 있는 부사절이나 종속접속을 이끄는 어미와 동일한 目錄으로 보지 않는다(任洪彬, 1984 참고). 이는 이들 어미가 다른 어미들과 달리 종결의 통사 기능을 보이며 또 時制나 敘法의 先語末語尾 '-았-', '-겠-', '-더-'를 취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한다. 기원적으로는 반말체의 종결어미 '-아'는 副詞形 語尾 '-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지만 현대국어에서 반말체 '-아'는 완전히 종결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金鳳國(2001)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의 방언에서 어말어미 '-아/어'의 交替 樣相이 종결어미인 경우와 부사형인 경우에 서로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ㄷ. [명호는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다.

따라서 부가적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또는 별 의미가 없는 일로 생각될 수도 있어 많은 논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하게 다루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각각 문장의 기능과 의미는 동일하지 않으며 몇 가지 점에서 동사구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²⁴⁾

먼저 의미론적으로 보아서 後行 事件에 대한 先行 事件, 前提나 條件, 假定, 原因, 理由 등의 기능을 갖는 문장은 從屬接續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動詞나 形容詞에 대한 樣態의 修飾을 하는 기능을 보이는 것은 附加的副詞節이다. 이는 의미론적으로 당연한 것이나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의 구별을 위한 문법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문법적으로는 부가적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나 종속접속은 후행절 전체와 관련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적 차이가 代名詞化, 再歸化, 後行文 또는 上位文의 終結語尾와의 共起制約 有無 등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ㄱ. 땅을 팔아 순이가 주식을 샀다.

ㄴ. 친구가 와서 순이가 집에 있었다.

(22)는 모두 어말어미 '-아'로 이끌리는 문장이지만 의미상 前者는 方法的 부가적부사절이며 後者는 原因의 종속접속절이다. 그런데 이 두 문장에서 '땅'과 '친구'의 屬格이 문장주어인 '순이'와 共指示의 일 때 屬格의 외현적 실현에 차이가 생긴다.

(22') ㄱ. ?순이 땅을 팔아 순이가 주식을 샀다.

ㄴ. 순이 친구가 와서 순이가 반갑게 맞았다.

24)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의 구별에 대해서는 任洪彬·張素媛(1995), 이은경(1996)에 자세한 언급이 있다.

또한 再歸化에서도 두 문장은 차이를 보인다.²⁵⁾

(22'') ㄱ. 자기 땅을 팔아 순이는 주식을 샀다.

ㄴ. ?자기 친구가 와서 순이가 반갑게 맞았다.

(22', 22'')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22ㄱ)이 動詞句 內包文이고 (22ㄴ)이 文章 接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사구 내포문인 (18ㄱ)의 기본적인 위치는 主語 뒤의 동사구 내부가 된다.

이의 대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3) ㄱ. [순이가 vp [[(순이) 땅을 팔아] S₁ 주식을 사-v] S₂ - 았 -다.

ㄴ. [[(순이) 친구가 와서] S₁ [[순이가 반갑게 맞-] -았 -다]

(23)의 (ㄱ)에서는 內包節 S₁의 屬格은 主節인 S₂의 主語 '순이'의 統制(control)를 받는 반면 (ㄴ)에서는 S₁과 S₂가 서로 문장의 경계를 달리 하므로 S₁의 속격 표지는 主節 S₂의 주어 '순이'의 統制를 받지 않는다. (ㄱ)의 속격 '순이'는 주절 주어와 共指示의이므로 통제 관계에서 되풀이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되어 空範疇로 처리되는 것이다. 반면 再歸化는 이 경우 매우 자연스러운 절차가 된다. 이에 반해 (23ㄴ)은 그러한 통제 절차가 없으므로 屬格의 외현적 實現이 자연스럽고 再歸化는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문장의 終結語尾와의 共起制約 문제를 한 번 검토해보기로 하자. 부사어는 動詞(語幹) 자체를 꾸미는 것, 다시 말하면 동사의 支配 영역인 VP 내에 있는 성분이므로 종결어미인 보문소와는 이른바 VP의 방벽(barrier)에 의해 격리되므로 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²⁶⁾ 반면 종속접속은 후행문 전체에 대해 직접 관련을 맺는 것이므로 후행문의 지배주인 종결어미에 따라서 종속접속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5) 再歸化와 관련한 從屬接續節과 附加的 副詞節의 차이 양상에 대해서는 任洪彬·張素媛(1995) 참고.

26) 障壁(barrier)에 대해서는 Chomsky(1986)를, 支配(government)에 대해서는 Haegemann(1991)을 참고.

- (24) ㄱ. 온 몸에 땀이 나도록 달리-ㄴ다./-느냐./ -(아)라/ -자/ -니 ...
 ㄴ. 땅을 팔아 주식을 사았다./-느냐/ -(아)라/ -자 ...
 ㄷ. 비가 와 집에 있었다./ -느냐/ *-(아)라/ *-자 ...

(24ㄱ, ㄴ)은 부가적 부사절으로 이 문장을 내포하고 있는 상위문의 어말 어미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24ㄷ)은 원인이나 이유를 뜻하는 종속어미 ‘-아’로 종속된 종속접속문이 후행문의 어말어미에 따라 성립되거나 그렇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²⁷⁾ 이런 점을 고려하여 (24ㄷ)과 같은 종속접속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25) [[S₁] [S₂]] - C(종결어미)

우리는 몇 가지 예를 통해 종속접속절과 동사구 부사절을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 그런데 이것으로써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 왜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어말어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에나’ ‘로’ 같은 동일한 부사격 조사구가 동사구 부사어로도 쓰이고 문장 부사어로도 쓰이는 것을 보았다. 이런 점은 체계상 부사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도록’, ‘-아’, ‘-고’ 등과 같은 동사구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가 문장 수식의 위치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로 종속접속절로 불러왔던 것이다. 이 종속접속절은 앞에서 언급한 국어의 부사어 체계로 볼 때 바로 文章 副詞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從屬接續節이 文章 副詞節이라는 점은 앞의 (24)의 예와 같이 종속접속절과 종결어미 간에 서로 共起制約이 있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⁸⁾ 이 점은 앞에서 보았듯이 문장 부사어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종속접속절을 문장 부사절로 인식되어야 하는 보다 본질적인 점은 이미

27) 이와 같이 종속접속의 어미와 종결어미와의 공기제약의 유형에 대해서는 徐泰龍(1979), 권재일(1985) 등을 참고할 것.

28) 물론 ‘-면’과 같이 이러한 제약이 없는 경우도 있다.

(20, 21)에서 보듯이 ‘-고’나 ‘-아’ 같은 종속접속절을 이끄는 많은 보문소들이 동시에 동사구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는 형태·통사론적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문법 체계가 동사구 부사절과 문장 부사절을 하나의 범주 아래에 묶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종속접속절이 본질적으로 부사절 또는 부사어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동안의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에 대한 분명한 범주 구별 작업에 왜 설명적 어려움이 있어왔는가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다. 이는 한 범주를 서로 다른 범주로 구별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종속접속을 문장 부사절로 볼 때 가령 ‘-아’나 ‘-고’節과 같이 절의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른 의미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에’나 ‘로’와 같은 부사격 조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분간의 의미 관계와 구조 자체가 부여하는 의미와의 복합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²⁹⁾

종속접속절이 문장 부사어의 하나라고 하는 점은 이것이 문장의 계기적 확대 과정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단위에 내포되어 있는 성분임을 뜻하는 것이다. 앞의 (12)에서 IP를 수식하는 부사어(= 문장 부사어) 자리를 설정해 두었는데 이 위치는 한 문장의 통사적 성분이 오는 자리이며 둘 이상의 통사적 성분이 접속되는 자리가 아니다. 바로 이 자리에 종속 접속절이 오는 것인데 주성분이든 부가적 성분이든 하나의 통사 구성에서 각 성분이 올 수 있는 자리에는 접속이 아니면 해당 성분의 숫자에는 제한이 있다. 문장 부사절이 같은 후행문에 연속적으로 접속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26) ㄱ. * [비가 오면] S₁ [친구가 오거든] S₂ 집에 있어라.

ㄴ. * [하늘이 높아서] S₁ [날이 개니] S₂ 기분이 좋다.

(26)은 문장부사절의 위치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절이 온 것이다. 각각의 S₁과 S₂가 독립적으로 후행문에 접속되면 문장 성립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따라서 (26)이 성립되지 않음은 이들을 접속의 관계로 볼 수 없게 하는 것

29) 국어의 접속어미 또는 부사형어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徐泰龍(1979, 1988), 김승곤(1981, 1984), 권재일(1985), 윤평현(1989), 李恩卿(1990) 등 참고.

이다.

- (26') ㄱ. 비가 오면 집에 있어라.
 ㄴ. 친구가 오거든 집에 있어라.

다음의 경우는 종속접속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 (27) [날이 좋아서] S₁ [공원에 나갔더니] S₂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S₃
 [다니기가 힘들었다] S₄.

얼핏 보아서 (27)은 동시에 4개의 문장이 나란히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₁은 S₂의 문장 부사어 자리에, S₁과 S₂는 S₃의 문장부사어 자리에, S₁과 S₂ 및 S₃는 S₄의 문장부사어 자리에 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27') [{ < (S₁) S₂ > S₃ } S₄] 30)

(27')의 구성은 내포 구성의 전형적인 도식으로 문장부사절이 두 문장의 접속이 아니라 한 문장의 내포적 성분이 되고 있음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남은 문제는 종속접속절이 부사절의 하나라고 한다면 종래의 對等接續과 從屬接續으로 구성된 接續의 체계는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당분간은 국어에서 접속은 對等接續 하나만 존재한다고 보기로 한다. 우리는 이 점과 관련하여 국어에서 '와'가 순수한 接續과 同伴格的 副詞語로서 양면적 기능을 보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28) ㄱ. 나는 친구와 약속을 했다.
 ㄴ. 민수와 선영이는 나의 친구이다.

30) 통상적으로 성분의 경계 표시는 ' [] '와 같이 하나 시각적 편의를 위해 (27')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28ㄱ)은 동반격이고 (28ㄴ)은 성분접속이다. 동일한 표지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들의 통사적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한 예로 접속의 경우 접속 구성 성분 어느 것도 접속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성분과 섞일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¹⁾

문장접속을 이끄는 대표적인 어말어미인 ‘-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성을 보인다. (29ㄱ)은 순수한 접속의 예이고, (29ㄴ)은 원인이나 계기의 문장부사절의 예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말어미 ‘-고’를 가지고 있다.

- (29) ㄱ. 하늘은 높고 날씨는 서늘하다.
 ㄴ. 철수를 보고 영이는 화를 냈다.

(29ㄱ)의 ‘-고’節은 순수 접속이므로 선행문과 후행문이 서로 뒤섞일 수 없지만 (ㄴ)의 ‘-고’節은 문장 부사절이므로 선행문과 후행문이 서로 뒤섞일 수 있다.

- (29') ㄱ. * 날씨는 하늘은 높고 서늘하다.
 ㄴ. 영이는 철수를 보고 화를 냈다.

이러한 것은 순수한 접속은 ‘-고’를 전후해서 두 문장이 대등적으로 나열되는 것이며 문장 부사절은 상위문의 수식 자리에 ‘-고’節이 內包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대등접속을 부사어 체계에서 분리하였지만 대등접속의 어미나 조사가 동시에 부사형으로도 기능하는 점은 대등접속과 부사어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 주는 듯하다.³²⁾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다음 세 자리에 모든

31) 이와 같은 ‘와’의 接續과 同伴의 副詞格 標識로서의 兩面的 機能에 대해서는 金完鎭(1970) 등 참고.

32) 李翊燮·任洪彬(1983)에서는 대등접속절을 종속접속의 한 특수한 부류로 보고 있다.

유형의 부사어들이 投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0) [A : 문장 부사어] [B : 부가적 부사어] [C : 보어 부사어]

하지만 해당 부사어나 동사, 또는 문장의 조건에 따라 실제로 투사될 수 있는 자리는 차이가 있다. 가령 '에'나 '로' 따위의 격조사구 또는 '-고', '-아'와 같은 부사절들은 위의 세 범주 모두에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잘', '안', '못'과 같은 어휘 부사나 否定의 부사절 '-지'는 C의 자리에만 올 수 있으며 '아마', '어쩌면'과 같은 문장부사나 '-거든, -면' 따위의 부사절은 A자리에만 올 수 있다.³³⁾ 또 격조사구 '처럼'이나 부사절 '-게'는 B, C의 자리에만 올 수 있다.³⁴⁾

부사어뿐 아니라 동사의 어휘적 조건에 따라서도 부사어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동사들이 필수 부사어를 취하지 않으므로 C의 자리가 제한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사어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세부적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도 이는 개개 부사어나 동사 또는 기타 성분의 어휘적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문장 부사어와 부가적 부사어, 보어 부사어로 형성되는 국어의 부사어 체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V. 結 論

국어의 副詞語 體系에 대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부사어는 語彙 副詞, 副詞格 助詞句, 副詞節로 구성된다.
2.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附加語的 機能을 가지나 동사나 부사어 자체의 성

33) "네가 하지 왜 동생을 시키느냐?"의 선행문의 '-지'는 여기서는 否定의 '-지'와는 다른 목록으로 일단 분리해 본다.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4) 이 글은 부사어 체계에 관련된 글이므로 개개 부사어의 문장에서의 투사 위치에 따른 분포적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하지는 않는다. 문장에서의 부사어의 투사 위치에 따른 유형적 분류와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더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격에 따라 동사구 보어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보일 수 있다.

3. 부사어는 그 統辭의 位置에 따라 動詞句 補語 副詞語, 動詞句 附加語 副詞語, 文章 副詞語로 나눌 수 있다. 개개의 부사어는 부사어 자체의 형태, 의미론적 특성 및 동사의 조건에 따라 이 세 위치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리에 올 수 있다.

4. 內包節도 副詞語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때의 내포절은 副詞節이 되는데 부사절도 그 위치에 따라 동사구 보문, 일반 부사어로 나뉜다. 이 부사절이 후행문 앞에 놓이면 흔히 從屬接續節로 이를 불러 왔는데 종속접속절은 부사절의 한 유형인 문장부사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장부사절도 문장 부사어와 그 문법적 성격을 같이 한다.

5. 從屬接續節이 文章 副詞節이 됨에 따라 국어의 접속 체계는 對等接續으로만 형성된다. 하지만 ‘와’나 ‘-고’와 같이 한 형태가 접속과 부사어를 동시에 이끄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本稿에서의 副詞語 體系化 作業은 부사어의 세밀한 영역까지 살펴본 것은 아니다. 각각의 부사어들이 이 체계에서 어떤 統辭의 樣相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教育部(1985), 『문법』.
_____(1996), 『문법』.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연구』, 집문당.
김민수(1971), 『國語文法論』, 一潮閣.
金鳳國(2001), 「江原 三陟 地域語 ‘-어/-아’系 語尾의 交替와 音韻 現象」,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주최 국어국문학 학술발표회 발표 요지.
김승곤(1981), 「한국어 연결형어미의 의미 분석 연구(I)」, 『한글』 174~175.
_____(1984), 「한국어 이음씨끝의 의미 및 통어 기능 연구(I)」, 『한글』 186.
金完鎭(1970), 「文接續의 ‘와’와 句接續의 ‘와’」, 『語學研究』 6-2.
김지은(1998), 「조사 ‘-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1.

- 김지홍(1992), 「국어 부사형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서강대).
-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어미」, 『말』 10.
- _____(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 徐泰龍(1979), 「國語 接續文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0.
- _____(1988), 『國語 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塔出版社.
- 安明哲(1992), 「現代 國語의 보문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
- _____(1999), 「보문의 개념과 그 체계」, 『國語學』 35.
- 柳穆相(1985), 『連結敘述語尾研究』, 集文堂.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 李恩卿(1990),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國語研究』 97.
- _____(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
- 李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 이흥식(1998), 「문장성분」, 『문법연구와 자료』, 太學社.
- 임동훈(1991), 「격조사는 핵인가」, 周時經學報8.
- 임홍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역량」, 『말』 9.
- 임홍빈·안명철·장소원·이은경(2001), 『바른생활과 국어문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任洪彬·張素媛(1995), 『國語文法論 1』, 한국 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周時經(1910), 『國語文法』.
- 최현배(1937=1980), 『우리말본』, 정음사.
- Chomsky, N.(1986), *Barriers*, MIT Press.
- Haegemann, L.(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Blackwell, Oxford.
- Radford, A.(1990), *Syntax: A Minimalist Introduction*, Cambridge UP.